

2013년 12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

어머니의 소리  
お母さんの声

소리.  
声

실내는 거대한 악기와 같다.  
室内は巨大な楽器のようだ

소리를 모으고 증폭시키고 전달한다.  
声を集めて増幅させ伝達する

각 방마다 다른 소리를 낸다. 어린 시절을  
各部屋ごとに違う声を出す。幼いころを

떠올리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내던 소리가  
思いうかべれば、母が台所で出した声が

제일 먼저 생각난다. 그 소리를 들으면  
一番先に思い出す。その声を聞けば

행복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신다는  
幸せだった。母が家にいる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소리였다.  
事実を確認させてくれる声だった。

- 페터 줌토르의 《페터 줌토르 분위기》 중에서 -  
- ピーター・ズントーの〈ピーター・ズントーの雰囲気〉より -

\* 공간의 소리가 다릅니다.  
\* 空間の音がすべて違います

사람마다 내는 소리가 모두 다릅니다.  
人ごとにだす音がすべて違います

같은 사람의 입에서도 다른 소리가 납니다.  
同じ人の口からでも違う声が出ます

사랑의 소리, 미움의 소리, 원망의 소리, 희망의 소리...  
愛の声、憎しみの声、恨みの声、希望の声...

사랑의 소리가 사랑을, 희망의 소리가 희망을 낳습니다.  
愛の声が愛を、希望の声が希望を生みます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제 영혼에 고스란히 남아  
母の祈りの声が、私の魂にそっくり残して

'내 안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私の中に母がいる'という事実を

늘 일깨워 줍니다.  
ずっと教えてくれます

모으다

[타동사]

集める; 合わせる (합하다); 募る (모집하다); まとめる (합치다); ...

(축적하다) 蓄える; 溜める. [준말] 모다.

증폭 (増幅)

[명사]

増幅.

(ひゆ的に) 物事の範囲が増大する [広がる...]

고스란히

[부사] そっくりみんな; 余すところなく; そっくりそのまま; 一つ残...

일깨우다<sup>2</sup>

[자동사] [타동사] 教えて悟らせる; 覚醒させる.

2013년 12월 31일 보낸 편지입니다.

레볼루션  
レボリューション

영어로 혁명을  
英語で革命を

'레볼루션' 이라고 하는데,  
'レボリューション' というが

시계 바늘이 한 바퀴 원을 도는 것 또한  
世界の針が、一周まわることもまた

'레볼루션' 이라고 한다. 새벽이 오기 전에  
'レボリューション' という。夜が明ける前に

어둠이 가장 짙어지듯이, 끝이라고 절망할 것도  
暗さが一番濃くなるように、終わりだと絶望することも

아니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자만할 것도 아니다.  
なく、新しい始まりだと自慢することもな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초침, 분침, 시침의  
休む暇なく動く秒針、分針、時針の

아날로그 시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アナログ時計に過去と現在と未来の

시간이 동시에 나타난다.  
時間が同時に現れる

- 한홍의 《시간의 마스터》 중에서 -  
- ハン・ホン<時間のミスター>より -

\* 한 시간 한 시간이 레볼루션입니다.  
\* 一時間、一時間、レボリューションです

하루 하루가 자기 삶의 레볼루션입니다.  
一日一日が、自分の人生のレボリューションです

한 해 한 해가 자기 인생의 레볼루션입니다.  
一年一年が自分の人生のレボリューションです

12월31일,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레볼루션'의  
12月31日、今日1年を締めくくる'レボリューション'の

꼭지점에서,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변했는지,  
頂点で、今年1年、私はどれだけ変わったのか

얼마나 성장했는지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どれだけ成長したのか点検してみる時間です

사랑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며,  
愛して感謝することが、なんであるか

못보고 놓친 것은 없었는지  
見ず逃したことがなかったか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振り返ってみる時間です

바늘  
[명사] 針; また, 針に似た物.

돌다

[자동사]

回る.

(회전하다) (物が)回る; 回転する.

[타동사]

回る.

(周囲を)巡る.

질다2

[형용사]

濃い.

(빛깔·화장 등이) (色彩·化粧·味などが)濃厚(...

(안개·연기 등이) (霧·煙·味·臭いなどが)深い.

끝

[명사]

(첨단) 端; ふち; 先.

終わり.

자만 (自慢)

[명사] 自慢.

休むひまなく仕事をする 발음 재생 (표제어:없어)

실새 없이 일하다

초침 (秒針)

[명사] 秒針.

분침 (分針)

[명사] (時計の)分針; 長針. (→시침(時針)·초침(秒針))

마감

[명사] 締め切り(\* 'ㄹ切' 로도 씀).

ちょうてん [頂点] 발음 재생

2. [수학]각을 이룬 두 직선의 교차점; 꼭지점. 3. 꼭대기; 절정; 정상. (=いただき) 4. 극...

놓치다

[타동사]

(기회·범인·손님 따위를) 逃がす; 逃す; 逸する.

(버스 따위를) 乗りそこなう; 乗り外す; 乗り遅れる.

(보는 것을) 見失う; 見逃す; 見過ごす[노인어].

2014년 1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今日

여기 흰 날이 왔다  
ここに白い日が来た

낭비하지 말라  
浪費するな

영원에서 이날은 나왔고  
永遠からこの日は出てきて

밤이 되면 영원으로 돌아간다  
夜になれば、永遠に帰る

이날을 미리 본 눈이 없고  
この日をあらかじめ見ることはきず

보자마자 사라져버린다  
見たらすぐに消えてしまう

여기 흰 날이 왔다  
ここに白い日が来た

낭비하지 말라  
浪費するな

- 토머스 칼라일의 시 〈오늘〉에서 -  
- トーマス・カーライルの詩〈今日〉より -

\* 오늘.  
\* 今日。

2014년 새해 첫날.  
2014年新年の最初の日

오늘은 우리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今日は我々に浪費するなと命令します

어제보다 더 값지게 더 알차게 살라고 말합니다.  
昨日よりさらに価値るように、さらに充実し生きようということです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말합니다.  
今日がなければ、あるもなく未来もありません

오늘 또다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今日、もう一度新しい夢と希望をもって

새롭게 시작하라! 말합니다.  
新たに始めなさい! といいます

영원 (永遠)  
[명사] 永遠; 永久; とこしえ; 久遠; 千代 [아어(雅語...  
이날

[명사] 今日; こんにちは; この日. [작은말] 요날.

나오다

[자동사]

出る.

(안에서 밖으로) (内から) 外へ出る; 出て来る.

[타동사]

出る.

(떠나다) 去る; 離れる.

돌아가다

[자동사]

(본디로) (もとに) 帰る.

(회전) 回る; 回転する.

[타동사] 曲がって行く; 回って行く.

미리

[부사] 予め; 前もって; まえかた; かねて; かねがね.

알차다

[형용사]

身が詰まっている; 身入る.

内容が充実している.

2014년 1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

좋은 디자인일수록...  
いいデザインであるほど...

좋은 디자인은  
いいデザインは

세상을 감정과 이성으로 이해하는  
世の中を、感情と理性で理解する

우리의 능력과 우리 자신 안에 있다.  
我々の能力と我々自身の中にある

좋은 건축 디자인은 감각적이며 지적이다.  
いい建築デザインは、感覚的であり知的だ

우리의 방,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을, 우리의 경관.  
我々の部屋、我々の家、我々の村、我々の景観

우리는 일찍부터 무의식적으로 이 모두를 경험한다.  
我々は、早くから無意識的に、このすべてを経験する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의 뿌리는 어린 시절이다.  
我々がわかっている建築のルーツは、幼い時節だ

그 뿌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있다.  
そのルーツは我々の歴史の中にある

- 페터 쉰토르의 《페터 쉰토르 건축을 생각하다》 중에서 -  
- ピーター・ズントーの〈ピーター・ズントー建築を考える〉より -

\* 좋은 디자인일수록  
\* いいデザインであるほど

뿌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ルーツと歴史があります

좋은 건축 디자인도 그렇지만  
いい建築デザインもそうだが

인생 디자인도 감각적이며 지적이어야 합니다.  
人生のデザインも感覚的で知的でなければならない

감각만 있고 지적이지 않거나, 지적이긴 한데  
感覚だけで知的でなかったり、知的だが

감각이 무디면 좋은 인생 디자인이 나올 수  
感覚が鈍いなら、いい人生デザインができ

없습니다. 섬세한 감각의 촉수를 높이고  
ません。繊細な感覚の触手を高めて

지성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知性の地平を広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건축 (建築)

[명사] 建築; 普請.

경관 (景觀)

[명사] 景觀.

일찍 早く

무디다

[형용사]

(날이) (刃などが) 鈍い; よく切れない; (切れ味が) 悪い; ...

(둔함) (勘などが) 鈍い; のろい.

(말이) (言葉などが) がさつでぶっきらぼうだ; つっけんどんだ.

せんさい [織細] 발음 재생

1. 섬세. 2. 결이 곱고 우미(優美)한 모양. 3. 감정이 곱고 예민한 모양. =デリ...

촉수 (觸手)

[명사]

觸手; (下等動物の) 觸覚器.

物を取る手; すなわち, 右手のこと.

手をつけること; 触れること.

2014년 1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있게, 자신답게  
自信をもって、自分らしく

자신다울 수 있으면  
自分らしくできれば

그것으로 충분하다. 항상  
それで十分だ、いつも

자신다움을 잃지 않는 일관성.  
自信らしさを失わない一貫性

조금 부족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ちょっと不足して、ちょっと気に入らなくても

자신다움을 유지한다면 그런대로  
自信らしさを維持すれば、それなりに

사람들과 같이 사이 좋게  
人々とともに、仲良く

살아갈 수 있다.  
生きることができる

- 김유정의 《슬픔에 잠긴 약자를 위한 노트》 중에서 -  
- キム・ユジョンの〈悲しみに使った弱者のためのノート〉より -

\* 가장 나다운 것이  
\* 一番自分らしいことが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一番世界的なことです

내가 나다움을 잃으면 그밖에 모든 것을  
私が自分らしさを失えば、そのほかのすべてのことを

얻는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得たとしても、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

매사 자신있게 사는 것이 자신답게  
いつも自信をもって生きることが、自分らしく

사는 것이고, 자신답게 사는 것이  
生きることであり、自分らしく生きることが

곧 자신있게 사는 것입니다.  
まさに自信をもって生きることです。

잠기다2

[자동사]

a[ '잠그다' の受け身] 浸かる; 浸る.  
(ある事業に資本などが)死蔵される.

耽ける; 暮れる; 沈む; 浸る.

약자 (弱者)

[명사]弱者; よわもの. (⇔강자)

20140103. txt

2014년 1월 4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추은진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チュ・ウンジ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새해 소망  
新年の願い

겨울철이면  
冬になれば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木はたくさん切られる

모진 비바람에도 고떡 았던 아릅드리 나무들이  
激しい風にも、びくともしなかつた一抱えを越す木が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雪が降って覆われれば、折れる。枝の先に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しづしづと降りて積もる、その軽く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白い雪におられてしまうのだ

- 법정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중에서 -  
- 法頂の<生きていることはすべて幸せ>より -

\* 솜털보다 더 가벼운 흰 눈송이에  
\* うぶ毛よりさらに軽い白い雪のかけらに

꺾이는 소나무처럼, 누군가의 강한 질책보다  
折られる松のように、誰かの強い叱責より

부드럽게 타이르는 진심어린 충고에 나의 고집과,  
柔らかく言い聞かせる心のこもった忠告に、私の固執と

욕심과, 미움이 꺾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欲と、憎しみが、折られるのを望みます。だから

부드러워진 나의 마음으로 모질고 거친  
柔らかくなった私の心で厳しく、荒い

또 다른 마음을 포근하게 품을 수 있는  
また、ほかの心を柔らかく抱くことができる

새로운 365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新しい365日になるように願います

모질다  
[형용사]  
(잔인) 残忍だ; 惨い.

(배겨 내다) 根氣がある; 粘り強い; (辛いことに)よく耐(...

(정도가 세다) (程度が)激しい; 厳しい.

びくともしない岩 발음 재생 (표제어:고떡(도) 않다)

고떡도 않는 바위

아름드리

[명사] 一抱えを越す木や物.

샤뿐샤뿐

[부사] 身軽に; 静静と; そっと; 輕輕.

솜털

[명사] 綿毛; うぶげ; にこ毛.

눈송이

[명사] 雪のひら; 雪片(\*한문투의 말씨).

타이르다

[자동사] [타동사] 教え諭す; たしなめる; 言い聞かせる.

진심 (盡心)

[명사]

尽心.

心に固有する本然の徳性をきわめつくして...

心のありったけをつくすこと.

모질다

[형용사]

(잔인) 残忍だ; 惨い.

(배겨 내다) 根氣がある; 粘り強い; (辛いことに)よく耐(...

(정도가 세다) (程度が)激しい; 厳しい.

포근하다

[형용사]

柔らかい; ふくよかだ; ふんわりしている.

(冬の氣候が)風もなく暖かい.

(雰囲氣などが)和やかだ.